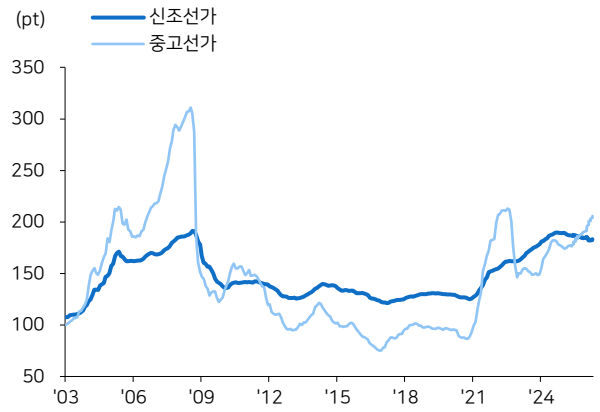
2026. 4. 23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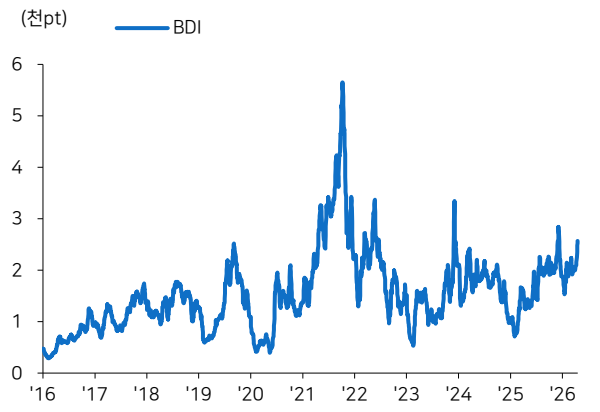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3.6p (+0.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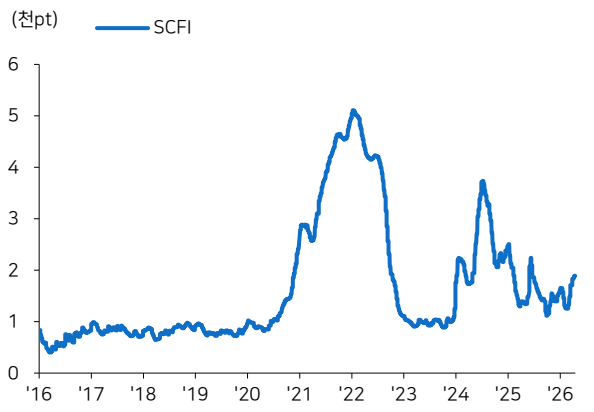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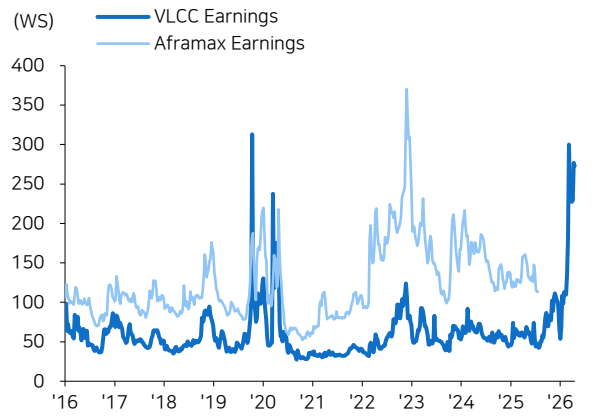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40.0p (+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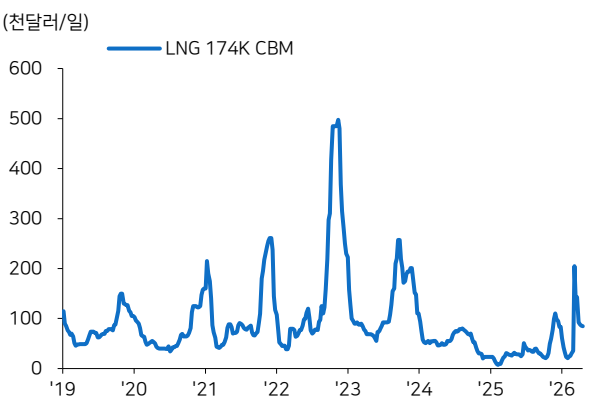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86.5(-4.2 WoW)



VLCC Spot Rate 272.9WS (-4.0p WoW)



LNG Spot 운임 84.5천달러 (-1.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중공업, 얼음나라들 제치고 쇄빙전용선 첫 수주...5,148 억 규모 (뉴스 1) https://zrr.kr/gzzSXa

HD현대중공업이 스웨덴 해사청(SMA)으로부터 약 5,148억 원 규모의 쇄빙전용선 1척을 수주하며, 국내 조선소 최초로 해외 발주 쇄빙선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이번 선박은 PC4 등급의 쇄빙 능력을 갖춘 15,000톤급 대형 선박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쇄빙선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2029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특히 이번 성과는 미국 · 캐나다 · 핀란드가 결성한 쇄빙선 건조 협력체인 'ICE Pact' 등 글로벌 극지 운항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이뤄졌으며,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쇄빙 기능이 필요한 글로벌 함정 및 특수목적선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美 함정 설계 강자와 손잡고 해군 시장 공략 (지디넷코리아) https://zrr.kr/7yFMnr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설계의 표준을 정립해 온 Leidos Gibbs & Cox와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Gibbs & Cox는 미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한 핵심 파트너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미국 해군 사양에 최적화된 함정 설계와 글로벌 시장용 차세대 함정 공동 개발,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다고 전해짐. 특히 이번 협력은 과거 Fincantieri가 미국 시장에 안착한 방식과 유사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받으며, 한화오션은 이를 발판 삼아 미국 내 함정 건조 사업 참여를 가속화하고 전 세계 해양 방산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화, 캐나다 앨버타주와 포괄적 경협...잠수함 수주전 총력 (연합뉴스) https://zrr.kr/GIxslt

한화그룹이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에너지, 방산, 조선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와 연계하여 현지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화에너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LNG, 수소, 탄소 포집 · 저장(CCS) 및 방산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앨버타주를 거점으로 자원 교역 확대부터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까지 중장기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잠수함 수주전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칠레 국영 조선소와 함정 건조 추진...필수 3 단계 합의안 제시 (더구루) https://zrr.kr/nXpluj

한화오션이 중남미 최대 방산 전시회인 'FIDAE 2026'에서 칠레와의 장기 해양 동맹 비전을 선포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단순 함정 공급을 넘어 공동 설계와 현지 건조(ASMAR 조선소 활용), 그리고 200명 이상의 현지 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방위적 기술 이전을 제안하며 칠레 조선 산업 현대화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해짐. 특히 칠레는 2035년까지 자국 내 함정 건조 역량 확보를 목표로 대규모 해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화오션은 국방부 군사차관 및 잠수함사령관 등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독일제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 등 향후 프로젝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했다고 알려짐.

HD 현대·포스코, 우루과이 해양순찰함 사업 '도전장'...스페인 빠진 빈자리 눈독 (더구루) https://zrr.kr/QSYV8B

HD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스페인 업체의 계약 파기로 재추진되는 우루과이 해양순찰함(OPV) 도입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단은 지난 17일 우루과이 국방장관을 만나 2,000톤급 해양순찰함 2척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역시 민관 공조를 통해 수주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전해짐. 특히 우루과이 정부가 기존 스페인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기술력 부족과 보증서 위조 등 심각한 결함을 겪었던 만큼, 필리핀 수출 등으로 검증된 HD현대중공업의 건조 역량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금융 조달 능력을 결합한 '팀 코리아'의 적기 인도 능력과 재무적 신뢰도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짐.

US claims more than 40 tankers have taken advantage of Jones Act waiver as Trump mulls extension (TradeWinds) https://zrr.kr/hl0WE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만료되는 Jones Act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40척 이상의 탱커가 혜택을 입어 미국 내 화물 운송 가능 선단이 70%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약 900만 배럴의 원유가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전역으로 수송되어 소비자들의 수입 의존도를 낮췄다고 전해짐. Kpler나 미 해사청(MARAD)의 집계치는 백악관의 발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전쟁 지속과 가솔린 가격 억제라는 정치적 이점 때문에 의회의 큰 반대 없이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